

# 현대석유화학, 가스 안전관리 1위

## 가스안전공사, 효율적 안전관리 기여 감사패 수여 ... 설비관리 중점

현대석유화학(정범식·박진수 공동대표)이 1월30일 경기도 시흥 소재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에서 거행된 창립 30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석유화학업계의 효율적인 가스안전 관리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.



**정범식 사장**

대형 고압가스 저장탱크가 46기, 위험물 저장탱크가 200여기에 이르는 현대석유화학은 각종 위험을 초기에 감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,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초석이라는 차원에서 평소 공정안전관리(PSM), 안전성향상 계획서(SMS) 등 정기적인 설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.

특히, 정범식 사장은 호남석유화학 및 현대석유화학에 27년 재임하는 동안 가스안전기술 로드맵 구축 등 석유화학 공장의 안전문화 조성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펼쳐오고 있다.

LP가스가 1972년 가정연료로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가스 연료는 국가경제와 국민 생활을 한 단계 발전을 시킨 반면, 급격한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가스에 대한 이해부족 및 안전의식 부족으로 일련의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.

<Chemical Journal 2004/02/02>